

# ABC사업 전국사찰 확대, 활용방안 모색

### 불교학술원 3년차 사업 돌입, 대흥사 시작으로 교구본사 조사

“한 장 한 장 지금 남기는 기록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소홀 할 수가 없습니다.”

장충동 충무로영상센터 지하에 마련된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유산 ABC사업 스튜디오. 1월 16일 찾은 이곳에서는 교양 원각사에서 수집해온 고문헌을 사진촬영 후 보존하는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대형 모니터에 앉아 촬영 후 넘어온 문헌사진을 점검하는 김성연 ABC사업 전임연구원의 눈빛이 빛났다.

일반 사진의 100배가 넘는 초고화질 사진에 활자 하나 하나의 필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 미세하게 틀어진 사진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재촬영을 요청했다. 스튜디오 바깥에 마련된 연구실에서 역주편찬팀이 서적발간을 위한 교정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전문연구자들이 모여 역주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날 사진촬영된 교양 원각사의 고문헌은 신집성문헌 분야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향후 서적으로 재발간된다.

### 교구본사 중심, 고문헌 본격 조사

한국불교는 1,700여년의 오랜동안 이 땅의 사상, 문화, 역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이로부터 생겨난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

한국불교의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특히 불교기록문화유산은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계승하고 이를 후대에 알리는 주요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불교기록문화유산을 결집시켜 디지털화 하는 아카이브 사업(ABC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2년. 현재 불교학술원 책임 하에 집성팀·역주팀·편찬팀·DB팀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통합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및 신집성문헌 등 3가지 분야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검색서비스를 시작했다.

ABC사업은 2015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고문헌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그 첫 시작은 해남 대흥사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한상길 집성팀장은 “예전과 달리 성보박물관에 많은 문헌이 있어 조사가 한층 수월하다”며 “사업이 안정화되며 문중과 사찰들이 조사에 협조적이다. 불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곳에서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 대흥사 문헌집성 모습(사진 왼쪽)과 고문헌 사진촬영 모습. ABC사업팀은 여기에 DB화를 거쳐 역주·편집·발간을 통해 대중에 자료를 공개한다.

### 전문가들 “이제 불교계 활용방안 모색”

ABC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불교학술원이 21일 개최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콜로키움’에서는 사업의 방향이 논의됐다. 콜로키움에는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와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 분야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정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불교기록문화유산 구축과 활용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양장진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정보공유 개방정책인 정부3.0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해남 대흥사 문헌집성 모습(사진 왼쪽)과 고문헌 사진촬영 모습. ABC사업팀은 여기에 DB화를 거쳐 역주·편집·발간을 통해 대중에 자료를 공개한다.

어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며 “불교계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아카이브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사업 담당자들도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습득과 활용방법 또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꾸준한 사업 시행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현자 스님은 “찬란했던 한국의 불교기록문화 유산이 21세기 디지털 대장경 조성불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내부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학회, ‘밀교·만다라’ 주제 워크숍

2월 13~14일, 워크숍 후 오아사·양동마을 답사도 진행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가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현)과 함께 2월 13~14일 경주 위덕대 대회의실 등에서 ‘밀교·만다라의 의미’를 주제로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장의 위덕대 대학원장의 ‘인도밀교의 형성과정’ △김영덕 위덕대 교수의 ‘금·태 양부만다라에 담긴 사상’ △강항숙 동국대 강사의 ‘후기밀교

만다라의 특징과 그 의미’ △계세 소남갈채 한국티벳센터 광성사 주지의 ‘티베트 밀교란 무엇인가?’ 등이 발표된다. 학술 세미나에 이어 14일에는 경주 양동마을 및 포항 오아사 답사가 진행된다. 참가비는 2만 5000원이며, 서울에서 출발하는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5만원이다. (041)731-3616

노덕현 기자

## 경주 남산 창림사지 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 “통일신라 시대 조성, 경주 남산 석탑 중 가장 화려”

문화재청은 1월 21일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석탑이 위치한 창림사지는 그동안 조사된 탐지와 견본지로 미뤄 통일신라 시대 사찰로 추정된다. 탑의 조성시기는 추사 김정희가 이곳을 찾았을 때 묘사해 둔 <무구정답타기>를 근거로 신라 문성왕 때로 보고 있다.

석탑은 2층 기단을 조성한 후 탑신부 3개 층을 얹은 전형적인 신라 3층 석탑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석탑은 그동안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1976년 김실선 부재를 보강해 복원됐다. 이 과정에서 2, 3층 탑신과



상층기단의 팔부신중상 4매, 기단 석재 일부가 신재로 교체됐다. 하지만 경주 남산에 자리한 석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다. 노덕현 기자

## “실크로드 불교, 중국과 한국에 큰 영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금강학술총서 <실크로드>서

“실크로드의 불교를 인도와 중국 불교의 가교로서만 이해하지 말고 중국과 한국 불교에 영향을 미친 불교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서방 간 문물 교류의 장이었던 실크로드는 단지 인도와 중국이라는 큰 ‘중심’을 이어주는 통로에 불과했을까. 최근 발간된 금강학술총서 <실크로드>에 실린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불교’ 논문에 그 해답이 있다. 정병조 총장(사진)은 논문을 통해 실크로드 불교가 단순한 가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국불교에 영향을 미친 불교이며, 철저하게 정교분리라는 입장을 취한 인도 불교와 달리 불교가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 총장의 근거는 실크로드 고대 국가들에서는 인도와 달리 중국처럼 국가가 불교 행사와 사찰 운영 등에 관여한 양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정 총장에 따르면 <대동서역기>에는 호란의 국왕이 직접 초파일 행사를 관장했으며, 이 행사를 인한 업무 중단 등의 피해를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했다. 쿠차의 경우에는 비구니계 사찰



운영을 국가에서 비구 통솔자에게 부여하는 형태를 띠어 중국의 ‘승관제(僧官制)’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서는 제도라 드러나기도 했다.

정 총장은 “대부분의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해 오아시스를 하나하나 거처며 중국의 서쪽 끝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때로는 그 정박지에서 정박지의 문화를 바꾸거나, 그 문화에 의해 변용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즉, 인도를 원산지로 하지만 동시에 서역제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동아시아 불교를 단순히 불교와 특정 지역의 문화에서만 찾으려는 견해는 지양해야 한다”며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용되기 이전 실크로드 불교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차별금지법 안에 중도 사상 담아야”

조준호 연구원, <불교연구>41집 ‘퇴옹성철의 중도’에서 강조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종교, 지역, 성별, 연령과 학벌 등으로 인한 충돌과 대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에 불교의 중도사상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과 2010년, 2013년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으나 개신교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 <사진>은 <불교연구> 41집의 ‘초기불교와 퇴옹성철의 중도 -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초기불교와 성철 스님의 중도 사상에 입각한 차별금지 조항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차별은 인간의 ‘우월의식’에 기초해 있으며 이러한 내면화 된 차별의식은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우월의식에 의한 차별은 위계적 질서를 구축하는데 이러한 세계관을 부정하며 나온 것이 초기불교의 중도”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시대에 따라 중도사상이 같



등해소의 기제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조 연구원은 “조 연구원은 ‘부처님은 수행자가 국경을 넘나들며 유행할 때, ‘그 나라의 풍속과 법을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또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이 이러한 중도를 불교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선과 교를 하나로 꿰었음을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겉으로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의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불교의 중도를 비롯해 차별금지에 관한 사상을 함께 담아보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위덕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MOU

진각총집 위덕대(총장 홍욱헌)는 1월 20일 포항 필로소호텔에서 평생학습협력에 위한 지역사회 교류협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위덕대가 대학-지역사회-산업체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위덕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단장인 김도희(성인학습지원처장)교수는 “산·관·학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평생학

습 교육모델을 ‘공생 파트너십’ 브랜드로 활용하고, 각 주체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위한 의사소통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위덕대학교와 평생학습교류협약을 체결한 포항시 등 26개 기관 및 산업체와 올해 새롭게 교류협약을 체결한 포항시니어클럽 등 12개 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학연구> 제42호 투고 논문 모집

불교학연구회, 1월 31일까지 ‘JAMS’ 통해 접수 및 심사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3월 31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 연구> 제42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이번 호부터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 논문을 접수·심사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200매가 넘으면 게재할 수 없으며, 120매가 넘을 때는 1매당 3000원씩 초과 게재료를 내야 한다. 불교학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맞지 않은 논문은 반려되며, 다른 연구지와 동시 투고할 수 없다. 불교학연구회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투고할 수 있다. 투고 마감은 1월 31일까지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성,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1월 26일 까지

◆개강일시 : 2015년 1월 26(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명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애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로 쌓아놓은 업식, 관념, 애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지동와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애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 인생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남법 - 몸애 근육과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를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땀 등)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기스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①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②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③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④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도 고통 받는 분

⑤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⑥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⑦ 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⑧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헤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⑨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⑩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상담비용 : 5만원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기업체, 인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